

LOCAL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장성, 호국보훈 ‘무궁화 도시’ 자리매김

목포, ‘항구축제 숲뜸’ 공모전
20일까지 30초 이내 영상 접수

목포시는 ‘2025 목포 항구축제 숲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목포 항구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내 마음의 목포 항구’로, 목포 항구의 풍경·감성·사람·일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30초 이내의 세로형 영상이면 된다.

출품작은 개인 SNS(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목포공모전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공개로 게시 후 영상 파일과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rhksdn158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다음달 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장려상 1명(상금 10만원)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43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

광양, 장기주차 차량 전수조사
올해 공용주차장 348곳 대상

광양시는 무단방치와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공용주차장 34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폐차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용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거나 무단 방치한 차량·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과 일반 자동차·이륜자동차다. 단속 결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 조치나 이뤄진다.

사용자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은 견인일로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관보와 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 1개월 내 반환 요구가 없으면 해당 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in@

‘무궁화 장성대축제’ 첫 개최…2000여명 발걸음
김한중 군수 “의병장 등 배출…충의·애국의 고장”

장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무궁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며 호국보훈 ‘무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무궁화공원에서 개최한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관광객 2000여명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가 개최된 장성무궁화공원은 2021년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한 무궁화 명소다. 9500㎡ 규모 부지에 46개 품종, 1만2000여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있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다.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명소 최우수상, 2024년 전남

도 친환경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축제는 총 세 곳에서 나눠 진행됐다. 먼저 무궁화공원에서는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열려 무궁화가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다. 장성군도 품평회에 참여해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300개의 무궁화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무궁화 묘목 나눔행사’도 관심을 끌었다. 공원 한편에서는 무궁화 소품 만들기, 무궁화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을 배려해 사용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장성무궁화공원을 찾은 관광객의 모습.

후 제자리에 갔다 놓는 양심 양산과 생수를 비치한 점도 좋은 평을 얻었다.

위더슬라이드, 물총싸움 등 물놀이하는 무궁화공원 아래 장성공원 경관폭포 쪽에서 즐길 수 있었다. 푸드트럭이 있어 음료

나 아이스크림, 간식을 먹기에도 좋았다.

개막식과 축하공연, 버스킹은 공원 아래 주차장 부지에서 열렸다. 축하공연에서는 장성지역 학생 뮤지컬 동아리 ‘하람’과 가수 황민호, 지창민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담양군에서 축제장을 찾은 임모씨는 “무궁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교통도 편리하고 즐길거리까지 많아 만족했다”고 말했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군은 화자를 만든 망암 변이종 선생, 의병장 기암선 선생 등을 배출한 충의와 애국의 고장이다”며 “이번 무궁화 장성대축제 개최를 기점으로 호국보훈 무궁화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무궁화 대축제’는 산림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전국 규모 행사다. 장성군과 수원시, 홍천군, 완주군 등 4곳에서 열렸다.

장성=이항범 기자 lh66699@gwangnam.co.kr

고흥, 조피불락 40만마리 긴급 방류
도양읍 해역…고수는 피해 선제 대응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 해역에서 관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양식어류(조피불락) 40만마리를 긴급 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지속되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다.

군은 양식 어가의 수요 조사를 통해 도양읍 소록지선(3개 어가·24만마리), 도양읍 화도지선(2개 어가·16만마리) 등 총 5개 어가로부터 조피불락 40만마리에 대해 신청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후 건강한 개체들로 긴급 방류했다.

또한 방류 후 관찰 수협과 어업인



홍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방류 해역 내 포획금지와 어구 제한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수는 특보 상황에 따라 양식 어가에서는 사전에 사육밀도 조절과 먹이 중단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깨끗하게 손 씻어요” 나주시보건소는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해 수족구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펼쳤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라스(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침, 콧물, 대변, 진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사진제공=나주시

영광, 80MW급 ESS 구축 확정…내년 준공 목표

계통통화 해소·전력 안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80MW(저장용량 480MWh)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탑술라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2026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ESS는 한전 변전소에 연결돼 전력거래소 요청 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영광군의 계통 부담이 완화되고, 전력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차 ESS 입찰에서는 전국 563MW 규모 중 전남이 7개소에서 523MW를 차지했으며, 군은 전남 전체 물량의 약 15.3%를 확보했다.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은 RE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군은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친환경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탑술라·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에너지공유화 기금 조성 및 군민 이익공유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하원 구조와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형 발전사업 기반과 지속 가능한 군 재정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10월 예정된 2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비롯한 향후 정부 ESS 입찰에서도 영광군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함평 월야초~빛그린산단 연결도로 확장

함평군은 월야초등학교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를 포함해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도로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와면 구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근로자·기업 관계자 유입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은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 등 군이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393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120개
K-낙산균 200 mg, LactoSpore 200 mg,
Bifidobacterium 100 mg, 유산균 10 mg
120개(총 2.5g) 100% 한국인 유래 균주

VITAMIN
HOUS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